

2018년 정보원 동요

1. 꽃동네 새 동네

플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

반짝이는 마음들이 모여 삽니다.
오손도손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은 있지요.

웃음이 피어나는 꽃동네 새 동네
행복이 번져가는 꽃동네 새 동네

2.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3.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꾸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4.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모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며 바다를 비친다.

5.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6.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 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뭇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이는 건
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7. 나뭇잎 배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 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동실 떠가는
연못에서 사알살 떠다니겠지

연못에다 띄워 놓 나뭇잎 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살랑살랑 바람에 소근거리는
갈잎 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8. 과꽃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과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과꽃 예쁜 꽃을 들여다보면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시집간 지 온 삼 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욱 생각나요.

9. 오빠 생각

뜸북뜸북 뜸북새 눈에서 울고
삐꾸삐꾸 삐꾸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럭기 북에서 오고
귀뿔귀뿔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10. 과수원길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돌아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돌아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11. 낮에 나온 반달

①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치마끈에 달랑달랑 채워졌으면

②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신다 버린 신짝인가요?

우리 아기 아장아장 걸음 배울 때
한쪽 발에 딸각딸각 신겨졌으면

③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빗다 버린 면빋인가요?

우리 누나 방아 찧고 아픈 팔 실 때
흠은 머리 곱게 곱게 빗겨 졌으면

12.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13. 겨울나무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가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피던 봄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14. 가을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 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쬐니다.

가을밤 고요한 밤 잠 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쟁니다.

15. 따오기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옴따옴 따옴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노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옴따옴 따옴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노
내 아버지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16. 은행잎 단풍잎

내 책을 넘겨보고 달아난~바람
노오란 은행잎을 놓고 갔~어요
내가 읽는 책 틈에 끼워 두~라고
가을이 보~내준 선물인~가봐
내 머리를 만져주고 달아난~바람
빠알간 단풍잎을 놓고 갔~어요
내가 읽는 책 틈에 끼워 두~라고
가을이 보~내준 선물인~가봐

17.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구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 모자 씌워 주고파
넷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머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엔 예쁜 꽃 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녀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엔 예쁜 꽃 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녀의 슬픈 사랑 얘기

18. 기러기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 서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 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어 기러기를 부르네.
산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길은
훨훨 날아 우리 땅을 다시 찾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살려 가는 곳
달아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알고 있겠지.

19. 가을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려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갈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20. 노을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강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초가지붕 둥근 박 꿈 꿀 때~
고개 숙인 논밭에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가을바람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타는 저녁노을~

21. 여수 旅愁

깊어 가는 가을밤에 낮 설은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내 고향

명경같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들불 가에 젖는 달빛 고즈넉이 내릴 제
줄지어 가는 기러기 떼야
서리 내린 저녁 길에 어딜 찾아가느냐?

깊어 가는 가을밤에 낮 설은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내 고향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내 고향

22. 고향생각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 떨기만 반짝거리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해 무엇 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23. 그리운 언덕

내 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뛰놀던 언덕
오늘도 그 동무들 언덕에 올라
메아리 부르겠지 나를 찾겠지

내 고향 언제 가나 그리운 언덕
옛 동무들 보고 싶다 뛰놀던 언덕
오늘도 흰 구름은 산을 넘는데
메아리 불러본다 나만 혼자서

24. 모래성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가고
내가 만든 모래성이 사라져가니

산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리려요
밀려오는 물결에 차취도 없이
모래성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파도가 어두움을 실어올 때에
마을에는 호롱불이 곱게 켜져요

25. 무지개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녀들이 건너간 오색 다린가
누나하고 나하고 동동 떠올라
고운다리 그 다리 건너 봤으면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녀들이 두고 간 오색 띠인가
등실등실 떠올라 똑 떼어다가
누나하고 나하고 떼어 갔으면

26. 바닷가에서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걷노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저녁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파란~ 바닷물은 꽃~무늬지네
모래마저 금~같은 바닷가에서~

27. 별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